

# 욕망이 빚어낸 괴물같은 세상 고통받는 그들, 구원은 어디에

국립합창단 초청공연 '전쟁 그리고 평화'...오늘 광주예당 대극장

## 예술감독 민인기·박소영·백재은·사무엘 윤 등 초호화 캐스팅

전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지구촌 평화를 기원하는 연주회가 마련됐다.

광주예술의전당은 2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국립합창단 초청공연 '전쟁 그리고 평화'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지난 1월 국립합창단 단장 및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민인기의 지휘로 고전 음악의 거장 하이든의 '전시 미사'와 영국의 현대 음악가 칼 젠킨스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선보인다.

이날 공연 협연자들도 눈길을 끈다. 미국 오페라극장 주역 등 국내외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박소영, 뉴욕 메트로폴리탄 국제 콩쿠르 입상 후 국내 무대에서 주역으로 활약 중인 메조소프라노 백재은이 함께한다.

이와 함께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 2위, 키바니스 리트 듀오 콩쿠르 1위를 수상한 테너 김세일, 독일 주정부가 수여하는 궁정가수 칭호를 수여 받은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 이탈리아 피아첸차 국립음악원, 밀라노 아카데미 오페라

과, 노르마 시립 뮤지컬학과를 졸업하고 국내에서 후학을 양성 중인 소프라노 류정례, 국내 유일 합창 전문 연주단체 라퓨즈 플레이어즈 그룹도 무대에 오른다.

첫 포문을 여는 작품은 하이든의 '전시 미사'다.

하이든 후기에 완성된 그의 첫 번째 작품이다. 전쟁의 참혹한 현실과 극심한 공포, 불안 등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상황이 작품 전반에 드러나 있다. 암울한 전쟁 속에서도 희망과 평화의 염원을 담은 이 작품은 오늘날 성악 음악의 정수로도 손꼽힌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칼 젠킨스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선보인다.

무력 분쟁 중 목숨을 잃은 사람들, 특히 무고한 희생자들은 위한 헌정곡이다. 간디, 마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 마더 테레사, 알버트 슈바이처 등 수세기에 걸쳐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한 예술가 및 사상가,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가사에 담았다. 전쟁과 갈등에서 벗어나 모든 인류의 희망적인 미래와 평화에 대한 고민을 음악으로



소프라노 박소영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



테너 김세일

로 함께 나누고자 한다.

민인기 예술감독은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비극적 참상으로 고통받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하루 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연주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공연 티켓 가격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티켓링크(1588-7890) 홈페이지, 전화예매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청소년, 단체(20인 이상)는 50% 할인이 가능하며, 광주예술의전당 유료회원은 4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최명진 기자



## 광주아무르합창단 창단10주년 연주회 성료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인 광주아무르합창단의 창단 10주년 기념 연주회가 지난달 29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성료됐다.

'해질녘 집으로 가는 따스한 음악'을 주제로 펼쳐진 이날 공연은 관객들에게 풍성한 하모니와 함께 희망찬 메시지를 선사했다.

공연 오프닝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진의 카치니 '아베마리아'로 장식했다.

'영혼의 울림' 섹션에서는 Don Besig의 '그의 빛 안에 살면', 정희치 편곡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무대가 이어졌다.

'서정적인 K-가곡' 무대도 눈길을 끌었다. 유경환 시·박지훈 곡의 '도라지꽃', 김명희 시·이안삼 곡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설도시·김성태 곡·오병희 편곡 '동심초'가 아름다운 선율로 울려 퍼졌다.

특별출연 무대도 돋보였다. CBS소녀합창단은 알트하우스의 '영원

한 음악', 안효영 곡 '주와 함께'를 들려줬으며 드림신 트리오의 동요 메들리와 'Caracan' 곡을 선사했다.

공연의 대미는 밴드와 함께하는 K-pop으로 '벚꽃엔딩'과 '옛사랑', '나는 문제없어' 무대로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한편 광주아무르합창단은 영화 음악과 오페라, 성가, 가곡과 민요 등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명진 기자



제30회 광주미술상 특별상 백상옥(왼쪽), 이사장 오건택, 수상작가 조유나, 특별상 윤성민(오른쪽)

## 제30회 광주미술상에 조유나 작가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 특별상 백상옥·윤성민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이사장 오건택)가 주최하는 2024년 광주미술상에 조유나 작가가 선정됐다.

조 작가는 유년기 시절 엄격한 가정환경에 따른 심적 억압에 대한 트라우마를 대상으로 치유로서의 예술과 그 의미를 탐구한다. 특히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현대인들의 내적 압박을 조정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의 정체성인 빛과 자아를 결합시킨 실리온 네온 빛 조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수상자인 조 작가에게는 오는 12월

개인전 창작활동비 및 도록제작비 등 1천만원 상당의 창작지원금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전시공간, 온·오프라인 홍보, 관객과의 대화 등도 지원한다.

특별상은 백상옥·윤성민 작가가 수여했다. 이들 작가 또한 별도로 2인전 지원을 받는다.

한편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미술상'의 의미를 환기시키고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미술상 30주년 기념전'을 가질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 내일만을 위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자화상

# '도시의 피에로'

이창훈 개인전, 7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각박한 현실과 경쟁구조 속 고독과 불안감으로 얼룩진 현대인의 자화상' 한국화가 이창훈 개인전이 오는 7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에서 열린다.

급변하는 사회 속 현대인들의 모습을 담아내는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작품 30점을 선보인다.

화면 속 등장하는 피에로는 오묘한 표정으로 우리를 응시하고 있다. 짙은 분장 속 본래 얼굴을 감춘 피에로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면 깊숙이 숨겨진 감정을 뽐내 보인다.

또한 피에로의 강렬한 의상과 획일화된 헤어스타일, 브로치, 목걸이 등으로 치장한 모습은 외면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인간 욕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창훈 작가는 "치열한 사회 속 현대인들은 마치 토피바퀴처럼 살아가



'도시의 피에로'

며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내일만 쫓는 현대인의 삶에서 잠시 벗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관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티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휴집  
외벽·독채·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 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 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공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